

“200만 도민 숙원 전남권 의대 설립 포기 없다”

민중 전남도당, 의정 합의 여파 의대 설립 좌초위기 “도민 건강권 확보·의료 불균형 해소 위해 꼭 필요”

정의당 전남도당이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의사 파업 여파로 전남의 30년 숙원인 전남권 의대 설립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민주당 주도의 의정 합의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전남권 의대’는 200만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만큼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가동될 의정 협의회를 거쳐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놴다. 전남도당의 이 같은 주장은 당론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 이례적인 것으로 “민주당 때문에 전남권 의대 설립이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지역 민심을 추스르는 동시에 중앙당에 지역 민심을 보다 선명하게 전달하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진다.

일 ‘200만 도민의 숙원, 전남권 의대 설립 포기할 수 없다’는 논평을 내고 “의사들이 파업을 접는 대가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설립 중단 요구를 관철하면서 도민의 숙원사업인 전남권 의대 설립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대한의사협회를 겨냥했다.

전남도당은 “의사들이 지난 4일 코로나 19 국난 와중에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키로 정부여당과 전격 합의했다”며 “파업 철회는 환영하나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선 전남권 의대 설립이 중단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있어서도 안 된다”고 비판적 논조를 이어갔다. 이어 “(이번 의정 합의로) 전국

에서 유일하게 의대 및 부속병원이 없는 전남의 의료 격차 해소는 당분간 요원하게 됐다”며 “전남권 의대 설립은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설립과는 차원이 다른, 도민 건강권 확보 및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불균형 발전 정책으로 인해 낙후한 전남의 의료 인프라까지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당은 아울러 “민주당 전남도당은 도민·당원과 함께 향후 의정 협의회 재논의 과정에서 전남권 의대 설립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이러한 논평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당이 주도해 지역 의대 신설·의사 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 추진을 원점 재검토하는 조건으로 의사단체 집단행동을 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당론과 배치되는 듯한

논평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당 관계자는 “전남도당 입장에서 당정의 의사결정이 끝난 사항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전남권 의대 설립 문제는 200만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이자 매우 민감한 이슈로 도당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 전남도당은 지난 4일 ‘정부여당, 대한의사협회 합의’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논평에서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 합의는 공공의대와 의사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한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중차대한 국가적 의제를 해당 이익단체인 의사들의 집단행동 때문에 원점으로 되돌린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민주당 주도의 이번 합의를 비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영록 지사 “3개 태풍 피해 다각적 지원 검토” 지시

김영록 전남지사는 7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버려진 쓰레기 피해를 입은 순천을 찾아 “피해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과 불합리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지사는 순천시 안풍동 소재 피해현장을 찾아 피해현황을 살피는 한편 수확기를 앞두고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로했다. 김 지사는 “벼 수확을 앞둔 농가가 쓰러진 피해를 입어 매우 안타깝다”며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개선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도는 태풍 ‘하이선’에 따른 농작물 피해 조사와 접수 업무를 순천시청을 통해 신속히 파악하고 있다.

특히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지원 대책을 수립해 재해보상 시 누락된 농가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피해농가들에 대한 조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별 수요조사를 거쳐 민·관·군과 함께 일손돕기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경영이사 김영창 사업이사 배운식 내정

광주 도시공사는 “경영이사에 김영창, 사업이사에 배운식 씨를 임명 대상으로 내정했다”고 7일 밝혔다. 내정자들은 신원조회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최종 임명된다.

김영창 내정자는 전남일보 기자, 전남도 종합민원실장, 전남개발공사 경영·관공분부장, 코리아오토벨리오퍼레이션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배운식 내정자는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과장, 푸른 도시사업소장, 건축 주택과장 등을 거쳤다.

경영이사는 기획전략차·경영지원차·공공안전차, 사업이사는 도시재생단·도시개발차·주거복지차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3년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부터 추석 승차권 온라인 예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됐던 추석 승차권 온라인예매가 8일부터 시작된다. 9일은 호남선 온라인 예매가 진행되며 현장발매는 하지 않는다. 7일 광주승정역 대합실에 온라인 판매 안내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방정가

광주시의회 그린뉴딜특위 위원장에 김광란 의원

광주시의회 그린뉴딜특별위원회는 7일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광란(사진) 의원, 부위원장에 장연주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광주형 인공지능-그린뉴딜 종합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광란 위원장은 “광주시의 인공지능-그린뉴딜 종합계획이 캐비닛용 보고서로 그칠지 광주발전을 견인하는 시금석이 될지 그 원년인 2021년이 매우 중요한 해”이라며 “광주시 전 실권부만 아니라 광주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도 신재생



에너지 전환계획과 탄소배출 감축목표,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그린뉴딜 특별

위원회는 11일 ‘그린뉴딜 종합계획 무엇을 수정하고 보완할까?’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24일 광주시와 의회,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가 참여한 ‘그린뉴딜 원탁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맛의 고장 전남, ‘스마트 음식관광’ 열어간다

음식점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약부터 결제까지 비대면

전남도가 맛의 고장 남도 음식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비대면으로 예약부터 결제까지 하는 ‘스마트 음식관광’ 서비스에 나선다.

전남도는 7일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

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아 도내 음식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은 공공데이터 구축·가공 기술이 필요한 기관에 데이터 기업을 매칭해 데이터 구축·가공 등 예산을 지원하고, 완료 후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도내 음식점 3000개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상은 모범음식점 954개소와 시군 추천 3501개소 중 99㎡ 이상 규모의 음식점이다. 다만 위생점검 등으로 1년 이내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제외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로 메뉴와 가격, 내·외부 사진, 주변 관광지 정보와 위치, 휴일, 영업 시간 등 음식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게 된다. 구축된 자료는 영어와 일본

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돼 국내외 관광업계, 소비자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내 누리집 및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다.

전남도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추가로 비대면 예약에서 주문, 결제까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확대해 스마트 음식관광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객은 이동하면서 원하는 메뉴를 골라 남도의 맛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코로나19 시대 안전하면서도 여유 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현석 기자 cadol@

정무창 “광주 모든 학교에 열화상카메라 설치해야”

광주시교육청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내 학생 수 300명 이상 학교에만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 수 300명 이하인 학교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아닌 비접촉식 체온계만 지급돼 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7일 광주시의회 정무창(광산2)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관내 321개 초·중·고와 특수학교 중 284개 학교에 332대의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다. 35개 학교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다. 미설치된 35개 학교 학생 수는 5000여명에 이른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서울시 교육청과 대전교육청 등은 학생수와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학교에 열화상카메라 설치해 완료해 광주시교육청과 대비되고 있다”면서 “광주시 교육청은 향후 오프라인 개학에 대비해 광주시 관내 모든 학교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학생수 300명 이상인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우선 설치했으며, 향후 예산을 확보되는대로 추가 설치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잊히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